지상파 '시사'·케이블 '드라마'·종편 '예능'

2018년 방송가 총결산

주력 분야 다르게 시청자 공략
채널별 타깃 세분화 현상 심화

오늘밤 김제동

미스터 션샤인

하트 시그널 2

2018년, 방송가에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이 각각 서로 다른 주력 분야를 내세워 쏠쏠한 성과를 거뒀다.

지상파는 드라마와 예능이 '흉작'에 가까웠지만 시사보도 분야를 강화하며 '정상화'에 주력했다. tvN과 OCN을 위시한 케이블 채널은 다양한 장르 드라마로 시청자 눈을 사로잡았고, 종편들은 가성비 좋은 예능으로 경쟁했다.

◇김제동·김어준·주진우, 그리고 뉴스타파…지상파 '좌클릭'

KBS, MBC, SBS는 올해 드라마와 예능에서 큰 히트작을 남기지 못했다.

지난해 KBS에서 시청률 45%가 넘는 '황금빛 내 인생'과 젊은 층 호응을 얻은 '쌈, 마이웨이', SBS에서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거머쥔 '피고인' 등을 줄줄이 쏟아낸 것과는 대비되는 한 해였다. 심지어는 시청률 1~2%대 드라마도 수두룩해 '흉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신 지상파는 시사와 보도 부문에 주력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이뤄진 경영진 변화 후 시사 프로그램과 보도 부문 복원에 온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진보 색채와 스타성을 동시에 갖춘 진행자 영입에도 사활을 걸었다.

KBS 1TV는 방송인 김제동을 영입해 '오늘밤 김제동'을 선보였는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뉴스라인'을 폐지하면서까지 이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오늘밤 김제동'은 방송 후에도 진행자 출연료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보도 후폭풍 등으로 연일 이슈몰이를 했다.

최근에는 신년부터 간판 뉴스인 '뉴스 9'를 심층 뉴스로 전환하고 주말 블록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후 7시 뉴스인 '뉴스 7'을 종합뉴스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며 보도 부문 강화를 예고했다.

이밖에 심야토론이나 저널리즘 비판 프로그램도 선보였는데, 화제성과 시청률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MBC 역시 전통 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 화력을 다시 살려 조계종과 한판 대결을 벌이고,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국면에서도 이슈를 선도하는 등 녹슬지 않은 취재력을 보여줬다. 아울러 '나는 꼼수다' 멤버 중 한 명인 진보 성향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내세운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도 시청자 눈을 끌었다.

SBS는 '나꼼수' 수장인 김어준을 내세운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로 시청률 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 관련 방송 후 편파성 논란에 시끈 종영으로 퇴장했다.

이밖에도 KBS와 MBC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진보 성향 독립언론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연달아 영입하는 등 일제히 걸음을 왼쪽으로 한발씩 옮겼다.

◇안방극장 울린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OCN 약진

올해 드라마는 tvN이 그야말로 '독식'했다. 스튜디오드래곤 등 유수 제작사들과 손잡은 CJ ENM은 tvN을 통해 다양한 장르 드라마를 선보이며 수많은 인기작을 낳았다.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역시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PD 신작인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이었다.

일제강점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이병헌, 김태리, 유연석, 김민정, 변요한 등 연기력을 자랑하는 톱배우들을 내세워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했으며 시청자층 확대에 제약이 따르는 시대극임에도 시청률이 20%에 근접했다.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지상파 비지상파 구분 없이 시대극이 대거 포진 중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포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tvN은 이밖에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백일의 낭군님', '나의 아저씨', '라이브', '아는 와이프'부터 연말 '남자친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까지 여러 인기작을 배출했다.

또 다른 CJ ENM 채널인 OCN 약진도 눈에 띄었다.

'마니아들의 채널' 이미지가 강한 OCN은 올해 '라이프 온 마스'와 '보이스 2'처럼 보편성을 강화한 내용의 드라마와 엑소시즘극을 표방한 '손 더 게스트'처럼 독특한 장르를 내놓으면서 대중성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30대 여성 시청자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 OCN 설명이다.

40대 여배우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CJ ENM을 위협한 JTBC는 올해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청춘 드라마로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성과는 반반이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차은우를 내세워 화제성을 견인했지만 '제3의 매력'은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에 JTBC는 올 초 김남주를 내세운 '미스티'에 이어 연말 염정아, 이태란, 윤세아, 김서형, 오나라 등 40대 여배우를 대거 기용한 'SKY 캐슬'로 다시 기선 제압에 나섰다.

◇'하트시그널'과 '맛 시리즈', 종편에 인공호흡

예능은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SBS TV '미운 우리 새끼'와 '정글의 법칙', MBC TV '나 혼자 산다' 등 장수 인기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인기를 얻은 가운데 종편 강세가 눈에 띄었다.

특히 '하트시그널2'와 '도시어부'를 내놓은 채널A와 '아내의 맛'에 이어 '연애의 맛'까지 '맛 시리즈'가 히트한 TV조선이 약진했다. 특히 '하트시그널2'의 경우 20~30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을 보였다.

시사, 보도 부문에 치중하며 다소 '올드'한 채널 이미지를 지닌 종편들은 지상파 PD 영입과 기존 지상파에서 찾아볼 수 없던 기획을 내세워 젊은 시청자 유입을 노렸다.

종편들은 이에 더해 초반 흥행에 부진한 드라마 사업에도 다시 뛰어들었다. 결국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잘 만든 드라마 하나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TV조선은 윤시윤과 진세연을 내세운 '대군-사랑을 그리다'로 시청률 5%를 돌파했고 채널A와 MBN도 드라마 블록을 확장했다.

지상파는 시사 보도를 강화하고, 비지상파는 드라마와 예능에 주력하는 현상은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16일 "내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올해는 프로그램이 흥수를 이뤘다면 내년에는 조금씩 걸러질 것이다. 지상파는 교양으로 차별화하고, 케이블은 드라마 예능에 주력하면서 시청자 타깃도 더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박항서 매직' 한국도 홀렸다 … 베트남전 시청률 18.1%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2018 결승 2차전 경기 시청률이 18%를 돌파했다. 토요일 밤 한국에서도 베트남과 함께 '박항서 매직'을 즐긴 결과다. 〈사진〉

1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8분부터 11시 21분까지 SBS TV가 생중계한 스즈키컵 결승 2차전 베트남-말레이시아전 시청률은 전국 18.1%, 수도권 19.0%로 집계됐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앞세운 베트남은 전날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1-0으로 누르며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잔치인 스즈키컵에서 우승했다.

한편, 축구 중계와 동시간대 방송한 KBS 2TV 예능 '배틀트립'은 2.9%~3.0%, '삼청동 외할머니'는 1.5%~1.3%, MBC TV 토요극 '신과의 약속'은 10.2%~10.7%, 12.7%~12.9%, tvN 주말극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6.8%의 시청률을 보였다.

SBS TV는 박 감독에 대한 국내 관심과 토요일 밤 경기라는 점을 고려,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며 토요극 '운명과 분노'를 결방하면서까지 스즈키컵 중계를 결정했다. 중계도 간판 캐스터인 배성재와 장지현 해설위원에게 맡겼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과한 편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뮤비 4편 4억뷰 … '페이크 러브'도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FAKE LOVE·사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4억뷰를 돌파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발매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5시 22분께 유튜브 조회수 4억건을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5억뷰를 넘긴 'DNA'를 비롯해 '불타오르네', '쩔어', '페이크 러브'까지 총 4편의 4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이다.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으로 어두운 이별 감성을 표현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0위를 차지해 한국 그룹 최고 기록을 세운 노래다.

이밖에도 방탄소년단은 '피 땀 눈물',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세이브 미'(Save ME) 등 3편의 3억뷰 뮤직비디오, '낫 투데이'(Not Today), '상남자', '봄날', '아이돌'(IDOL) 등 4편의 2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했다. '데인저'(Danger), '아이 니드 유'(I NEED U), '호르몬 전쟁', '하루만' 등 4편은 1억뷰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나쁜형사(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땐뽀걸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언더나인틴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민선 7기 일자리 정책과 광주지역 고용전망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MBC플러스특선 대한외국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복수가 돌아왔다(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땐뽀걸즈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여순사건 70주기 여수MBC특강 도올, 말하다. 여순민주항쟁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삼국정립〉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띠띠뽀 띠띠뽀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15 뽀롱뽀롱 뽀로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꼬막비빔밥과 치즈 꼬막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3:40 배워서 남줄랩(재)
14:30 몬카트(재)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뚝딱맨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마샤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매혹에 빠지다 크로아티아 1부 시간 위를 산책하다〉
21:30 한국기행 〈화산섬기행 1부 동굴대탐험〉
21:50 특별기획 〈미래, 교육을 묻다〉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3:55 배워서 남줄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7일 (음 11월 11일 癸未)

子 36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48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60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72년생 사려 깊이 처리해야겠다. 84년생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면 분명한 승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1, 19

丑 37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49년생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자. 61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73년생 묵묵히 나아가자. 85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 행운의 숫자 : 63, 78

寅 38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50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62년생 부분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74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도다. 86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5, 26

卯 39년생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51년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63년생 통일된 시각과 진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75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도다. 87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입장이 일관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0, 88

辰 40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편을 해소해 주리라. 52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가 오히려 클 것이다. 64년생 믿음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개입하지 말라. 76년생 피지 못해서 변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88년생 재앙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56

巳 41년생 끼어들면 시비 수에 휘말린다. 53년생 줏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협조자가 생기리라. 65년생 추구해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77년생 영문도 모른 채 따라 가리라. 89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3, 75

午 42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있어야겠다. 54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66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78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량에 이른다. 90년생 대범한 행동을 보일 때다. 행운의 숫자 : 81, 44

未 43년생 관여할 필요가 없다. 55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철저히 피하라. 67년생 끝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79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91년생 잠시 기우뚱하던 배가 반동으로 바로 서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72, 80

申 44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56년생 지혜가 많은 이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자. 80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92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5, 12

酉 45년생 발 빠르게 대응 조치하면 해결 될 것이다. 57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과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69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81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93년생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 놓자. 행운의 숫자 : 50, 53

戌 34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46년생 늦은 시간에야 겨우 가닥이 잡히겠다. 58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70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82년생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해소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36

亥 35년생 적응하다 보면 극복 될 수도 있다. 47년생 노선을 이탈한다면 복잡해진다. 59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 시킬 것이다. 71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음을 알라. 83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활로가 트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4, 0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